

테바닷다의 경우

7세기경 중국의 구법승 현장은 서역 138개국을 순례하고 <대당 서역기(大唐西域記)>라는 12권짜리 기행문을 남겼다. 당시 인도의 풍속과 문화, 종교에 관한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은 고대 인도불교의 사정을 추정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꼽힌다. 그런데 이 기행문을 읽다보면 한군데 이상한 대목이 눈에 띈다. 제10권에 있는 카르나수바르나국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서 현상은 이렇게 쓰고 있다. "별도로 세 곳에 절이 있는데 유락(乳酪)을 입에 대지 않고 테바닷다(調達)의 유혹을 따르고 있다."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권>

테바닷다는 다 아는데도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한때는 총명한 수행자였다. 부처님에게 불교사상의 엄격한 율법과 교단의 주도권을 요구하다가 거부되자 배반의 길을 걸었다. 경전에 따르면 아사세왕을 속여 새로운 교단을 세우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다가 산체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다. 경전은 이런 테바닷다의 예를 들어 끝까지 개과천생을 하지 않는 인간말종을 일러 일천제(一闍提)라 했다.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그래서 해탈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현상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보니까 7세기경까지 이 테바닷다를 따르는 무리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다. 현상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잠시 머리가 멍멍해진다.

“최 지었다 해도 성불 가능성 인정 허물 다스리되 사람 버리지 말자”

이 외론은 대승불교의 이상을 담은 <법화경>을 읽으면 실마리가 풀린다. 불교는 일체중생이 불성을 가진 존재요, 성불의 가능성을 합당한 '부처님의 아들(佛子)'임을 가르치는 종교다. 만약 일천제라고 해서 성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가르침은 허구가 된다. 따라서 <법화경>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한 테바닷다까지도 성불의 기회를 준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불의 가능성을 박

아동학대 심각한 사회문제

5월5일 어린이날... '밝게 자란 아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

한국어머니 72% "자녀 잘못했을때 처벌" 선진국도 심각...인류공동의 고민거리

"부모는 다섯 가지로 자식을 경친해야 한다.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고, 착한 것을 가르쳐 주며, 학(學)과 도(道)를 가르쳐 주며, 좋은 며느리를 구해 주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잠야한 선생경>

지난달 27일 모 방송의 9시 뉴스에 보도된 미국 어느 부모의 어린이 학대는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두세살로 보이는 어린이가 머리를 향해 유유병을 던지고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학대방지센터'가 최근 밝힌 미취학 아동을 둔 동경 거주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중 1명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울도록 내버려 두는 등의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아프리카에서 41%의 아동이 학

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의 보고나, 지난 1월 유네스코가 아동성학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한 것을 보면 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류의 고민거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5월5일 어린이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고, 5월을 가정의 날로 정해놓을 정도로 '어린이 천국'으로 포칭돼 있지만 실은 다른 나라 못지 않게 아동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의 4살난 아들에게 마리화나를 피우게 하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 엄마, 6살짜리 아들을 굶기고 매질하며 심지어 다리아로 등을 지진 친아버지와 계모, 친아버지와 친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12살 소녀, 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리다 못해 가출한 어린 남매, 이 모두가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다. 게다가 우리나라 어머니의 72%가 자녀

가 잘못했을 때 처벌을 한다는 아동학대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는 우리 부모들이 매질이나 체벌을 아동학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친권이나 교육권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심각하다.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결과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97년 91건에서 98년에는 180여건으로 두 배 늘어난 것이다.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 상담센터가 제시한 97년 159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98년에는 3백여건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는 아동학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나사사경>은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경전의 말씀처럼 늘 자애롭고 푸르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사회의 앞날이 밝을 수 있다. 상처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할 수는 없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단 하루만이라도 평화오길"

인터넷 그림동화서 만난 '세 어린이의 대화'

"만약 단 하루만이라도 평화로워질 수 있다면 세상은 평화가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에 온통 다름뿐인걸, 집과 이웃, 심지어 나라끼리도 말이야" "그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지구를 돌보지 않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화목하게 더불어 살려고 한다면 모든 게 바뀔지도 몰라" 스티브 다이아몬드와 로버트 앨런 실버스타인이 글을 쓰고 진지 날슨이 그림을 그린 그림동화 '평화의 날, 2000

년 1월1일'의 첫대목, 사이버 평화운동단체인 '세계평화 2000'의 인터넷사이트(www.worldpeace2000.org.story)에 들어가면 지구촌에 단 하루라도 평화의 날이 깃들기를 바라는 세 어린이의 대화 가 펼쳐지는 이 동화를 만날 수 있다. 다른 한 친구는 "전세계에서 축하행사가 펼쳐질 때 천년의 첫날을 평화의 날로 하는 게 어떨까"하고 제안하고, 이내 아이들은 학교에서 '평화의 날 클럽'을 만들고 전세계 대통령까지, 국



왕할아버지께 편지를 띄운다. "어린이들은 전쟁과 죽임, 고통을 지쳤어요. 새 천년 첫날만은 충성을 멈추게 도와주세요"라고. 한명우 기자

청소년 컴퓨터게임 중독 확산 우유서 세포추출 송아지 복제

파인성 발작 일으키기도 시간줄이도록 관심가져야

최초로 보고된 이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막기보다는 시간을 점차 줄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다른 취미활동이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라고 권한다. 한명우 기자

우유에서 추출한 세포를 통해 복제된 송아지가 태어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홀스타인 젖소의 우유에서 추출한 세포에서 2마리의 송아지를 복제했다고 발표했다. 어미소의 체세포가 아닌 우유에서 송아지를 복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이 실험을 실시한 도마코마 연구센터 연구팀은 홀스타인 젖소에서 유선(乳線)세포를 추출한 뒤 이 세포의 세포핵을 미수정란에 이식, 2개월 간의 배양기간을 거쳐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복제송아지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생활정보

국세관련 증명서 팩스발급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팩스민원 발급제도 시행방안의 하나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국세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절차가 간소화된 민원서류는 납세증명서, 휴업사실 증명, 폐업사실 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5종이다.

99봄 분수대광장 축제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이달 31일까지 회관 뒷뜰 야외무대에서 '99봄 분수대광장축제'를 연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인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펼쳐지는 분수대광장축제에는 시립무용단의 전통무용과 미8군 군악대 연주 등이 열린다. (02)399-1626

불만한 어린이 유지컬

어린이 시즈먼 5월에 불만한 '어린이 유지컬'이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극단 신사가 펼치는 '비녀와 아수'는 9월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되며, 정동극장의 가족 유지컬 '나무꾼과 선녀'는 3월부터 30일까지 정동극장에서 계속된다. (02)399-1626

신문지 띄우면 목욕을 깨끗

받아놓은 목욕물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이 하는 방법. 신문지를 넓게 펴서 물 위에 띄우면 신문지가 더러움을 흡수해준다.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깨끗해진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

인텔수업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가 권장하는 바이러스 예방대책. ▲수시로 업데이트하면 백신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최선. ▲인터넷과 PC통신 등에서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때 바이러스를 체크해야 한다. ▲여러이 함께 사용하는 PC와 디스켓, CD를 등은 주의한다. ▲매일·매주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체크해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02)525-2141

건축장인의 꿈과 꿈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이 6월 7일까지 '건축장인의 꿈과 꿈'을 주제로 기획한 건축장인의 세계를 재현한다. 이번 전시회는 1부에서 고대에서 근대까지 당대의 목수들이 집을 짓는 데 썼던 연장과 관련 사진 250여점을 선보이고, 2부에서는 95년과 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을 담은 사진 10여점이 전시된다. (02)720-3138

현대 결혼 연구원.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며 꽃방울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중로구 관동동 55호. 대표전화: (02)2275-5592~3. 핸드폰: 018-277-5592.

심야 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심야전력기기간: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여는 전기를 일반전가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가를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를 따듯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축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력기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력기온돌: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므로 마루방도 난방에 적합합니다. 심야전력기온수기: 미리 지정된 온수를 사용함으로써 온돌 난방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력기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므로 마루방도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신사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문의전화: 02)883-7400(대). 영업부: 02)877-6090. FAX: 02)876-3378.

지장만일기도. 6만지장보살님 조성불사안내. 서울 불광동에서 30분거리, 아름다운 호수가 2개 있는 산자수려한 양주 백석도리산 육지장사는 6만 지장보살님 성상을 모시는 조성불사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밤 철야기도 정진 및 오는 10월 만일기도(30년) 입제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필히 동참 바랍니다. 만일기도입제일: 1999년 10월 17일(음9월 9일) 오전 10시. 만일기도 1년 동참비: 1만원(30년 30만원). 지장보살님 한분 모시는 동참금 10만원(1차 5차). 접수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7-12 삼보사 ☎ 352-6406. 기도처: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가산리 산128-1 도리산 육지장사 ☎ (0531)871-0101. 은행계좌번호: 국민은행 833-01-0097-579. 농협 045-01-202971. 우체국 012468-0136873-11. 하나은행 110-082213-00104. 주축은행 415637-01-002302. 예금주: 지장기도만일회. 삼보사 육지장사 주지 지원 합장.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쁜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수에 맞춰 절하는 법: 절대 솟치지 않고 힘껏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솟지 해라리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관백하게 절하는 비법. 열불 금강경 동경하는 법: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이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리고 지치고 절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빈뇌망상은 들끓어 심해서 멀어진다. 자성의 온음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 전에 한껏하게 풀려 큰 소리로 열불해도 목 아프거나 습지 않고 현재계 반역하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법. 장폐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지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불독2회, 석가모니를 열불 정진,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삼삼 점침,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찬자 수행체럼, 특별소원취하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진,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교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 차를 임박해서 다량의 약수가 나올 (일년 두어도 이까지 가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상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고승 소승강. 돌리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칠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현 수행전문도량임.